

이매창의 연정시 연구

유육례*

<차 례>

1. 머리말
2. 이매창의 삶과 시적 교유
3. 이매창의 시에 나타난 사랑의 노래
4. 맺음말

<국문초록>

이매창은 사랑을 노래한 조선 중기의 최고 여류시인이다. 그녀는 비록 신분은 기생이었지만, 그러한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어 남녀의 사랑을 시로 노래한 연정시를 창작하였다. 그녀의 감미롭고 감수성 넘치는 연정시는 많은 남자들의 가슴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루게 한다.

이매창의 연정시는 1) 자연을 시의 제재로 삼아 2) 자연의 경물에 자신의 심상을 투영시켜 연인과 환상적 만남을 추구하고 3) 봄, 가을, 내세와 같은 이미지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고양시킨다. 그리고 그녀의 연정시는 4) 현실세계에서 성취하지 못한 사랑의 완성을 삼청세계와 같은 내세에까지 연장시켜 결국 그 사랑의 완성을 노래한다. 시인은 이러한 시적 형상화의 과정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과 보고품을 다층적 공간으로 만들어 독자들을 매료시키는 시인만의 독특한 연정시를 창안하였다.

이매창은 사랑을 소재로 사용해 임에 대한 지고지순한 불변의 사랑을 노래하였다. 이러한 사랑은 몸은 비록 이역만리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만은 항상 임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전형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점이 시인

* 조선대학교

을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시인으로 평가하여 현재까지도 시인의 사랑의 시들이 많이 읊어지고 있다.

핵심어 : 매창, 연정시, 사랑, 그리움, 이미지, 기생, 봄, 가을, 내세

1. 머리말

이매창(李梅窓)(1573 ~ 1610)은 조선시대 중기에 부안현의 아전이었던 이탕종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계유년에 태어났다고 해서 계생(癸生)이라 하고, 기생이 된 뒤에는 계랑(癸娘)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는 부안이 자랑하는 여류시인으로 일생동안 부안에서만 살았다. 그녀는 부안을 배경으로 사랑하는 임에 대한 주옥같은 많은 시를 남긴 시인이다. 부안 사람들은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시집도 출판해 주었고, 그녀의 아름다운 시들을 필사해서 읽었다. 그리고 지금도 부안사람들은 그녀의 부안에 대한 사랑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매창 축제를 열어 그녀의 시세계를 찬미하고 있다.

매창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의 다양한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헌들은 허균의 문집 『성소부부고(惺所復部稿)』의 「조관기행」과 지정안왕거의 『열상규조』, 이수광의 『지봉유설』, 수촌 임방의 『수촌만록』, 박효관의 『가곡원류』, 촌은 유희경의 『촌은집』, 이능화의 『조선해어화사』와 『속고금소총』, 장지연의 『대동시선』이다. 이런 다양한 문헌은 그녀의 전기와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문헌들에 의하면, 매창은 스스로 자(字)를 천향(天香)이라하고, 호(號)를 매창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의 이름도 갖기 힘든 시대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스로 자와 호까지 지어서 부를 정도로 해박한 지식과 독특한 개성을 갖춘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

도 다른 여성들처럼 당시의 사회제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러한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방법을 찾았으며, 그 수단이 시와 시조이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임에 대한 사랑과 마음에 사무친 그리움을 바로 시라는 매개물로 노래했다.

조선 중기 시대는 일반 여성들이 사회적 규범에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살던 시대였다. 여성에게 교양을 가르치는 교훈서였던 『내훈』(內訓)은 여성이 유한 정정(幽閑 貞靜)한 자태와 절개를 지키는 여성상을 삶의 철칙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¹⁾ 일반적으로 사대부집안의 여성은 규방에서만 지내며 남편만을 바라보고 삼종지도(三從之道)와 칠거지악(七去之惡)을 관습적으로 따르는 생활을 했다.

하지만 기생들은 직업적 특성 때문에 사대부들을 자유롭게 만나 자유 연애를 할 수 있었다. 조선 말기에 비로소 기생은 일패, 이패, 삼패로 분류되는 계급적 체계를 가졌지만, 이매창이 살던 조선 중기는 아직 기생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기생들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사대부의 향락적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매창은 이러한 일반적인 기생들의 삶과 다르게 자신의 절개를 지키면서 정한(情恨)을 시로 노래하여 못 사내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시에 사랑하는 임을 향한 그리움이 절절히 묻어나는 시어를 사용해 자아 정체성을 고취시키면서 연인과 합일되는 삶을 노래했다. 그리고 그녀는 기생이라는 자신의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어 자신의 삶을 반영하는 많은 시를 창작하였다.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시는 시조가 1수이고 한시가 60편이나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매창의 기생으로서 삶과 시상(詩想)을 제공한 교유들을 먼저 검토한 이후에, 이러한 그녀의 삶이 사랑의 시로 묘사되어 그녀만의 시 세계를 어떻게 형성해 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1) 김보근, 「매창의 한시 일고」, 『조선시대 여성문학과 사상』, 이회, 2003, 120쪽.

시인이 봄, 가을, 그리고 내세(來世)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녀의 시 세계에서 '사랑의 여정'이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변모해 가는 과정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2. 이매창의 삶과 시적 교류

조선시대는 사대부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편견을 갖고 있던 시대이다. 그 당시에 사대부집안의 남성들은 시조와 시를 창작하여 문학의 주류를 형성했다. 하지만 소수의 기생들과 사대부집의 규방에 살던 귀부인들이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기던 시와 시조를 창작하여 여류 시세계를 형성했다. 특히, 기생들은 신분상으로 천민에 속했지만 사대부들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교양을 갖추고 깊은 사유와 민감한 감수성으로 여성들의 시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이는 그들이 양반사대부들과 풍류를 즐기면서 즉석에서 바로 시로 사대부에게 화답하는 풍토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생들의 시상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당당히 사대부들과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생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바로 시인 이매창이다.

조선중기까지 여성 문인은 주로 사대부가의 여성들과 기생들이었다. 그들은 한시로 시를 창작하였고, 가끔 생활시도 창작하였다. 이들 중에 대표적인 여류 시인은 허난설헌, 옥봉, 황진이, 이매창이다. 그들은 중국에까지 알려진 조선시대 문학을 대표하는 최고 시인들이다. 조선 중기는 여성들에게 문화나 사회적으로 열린 공간과 열린 사회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²⁾ 이 시기에 창작된 작품은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확대가 뚜렷하였고, 여성문학이 자생적으로 활짝 꽃을 피운 시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조선시대 중에서도 여성문학이 가장 왕성하게 번성한 여성 르네상스

2) 김명희, 『許蘭雪軒의 文學』, 集文堂, 1987, 30쪽.

스 시대라고 칭할 만하다. 이러한 여성문학의 르네상스시기를 대표하는 시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매창이다. 이매창은 기생³⁾이라는 신분을 뛰어 넘어 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삼아 위대한 작품을 창작한 조선 중기⁴⁾의 대표적인 여류시인이다.

이매창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기생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료(史料)가 남아 있지 않다. 그녀는 아마도 출신 성분 때문에 기생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⁵⁾ 하지만 그녀는 비록 신분은 기생이었지만 다른 기생들 처럼 모든 남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함부로 허용하지 않은 절개와 지조를 가진 기생이었다.⁶⁾ 또한 그녀는 시 창작과 거문고 연주를 아주 좋아했다. 그녀는 평소에도 자주 거문고를 연주했으며, 상당한 수준의 연주 실력을 갖췄다. 이러한 연유로 그녀는 자신이 죽으면 거문고를 그녀와 함께 묻어 달라고 유언까지 해서 거문고와 함께 안장되었다고 한다. 그녀가 사망한 이후에 부안지역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그녀를 추모하기 위하여 그녀의 시들을 모아서 시집으로 출간했다. 그 고장의 아전들이 외워서 후세에 전해지던 그녀의 주옥같은 시는 58수가 모여져 현종 9년(1668)에 개암사(開岩寺)에서 『매창집(梅窓集)』으로 간행되었다. 이 시집은 현재 간송미술

3) ‘기생’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생겨났을 때는 오늘날처럼 계집 기(妓)의 ‘기생’이 아니라 제주 기(伎)의 ‘기생’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에 다니는 사람을 학생(學生)이라고 부르듯이, 기생은 ‘재주를 배우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생(伎生)’이라고 불렀어야 타당하기 때문이다. 기생제도가 생겨났을 당초에는 기생이란 연락(宴樂)에서 흥을 돋우어 주는 여인이었을 뿐이지, 몸을 파는 일을 하지 않았다. (鄭飛石, 「妓生の 역사」, 『梅窓全集』(1), 고글, 2000, 39쪽.)

4) 조선 중기시대의 유명한 여성시인을 꼽으라면 규방시인 허난설헌과 기생이면서 시인인 이매창과 황진이를 들 수 있다.

5) 김미란, 「梅窓研究」, 『梅窓全集』(4), 고글, 2000, 18쪽.

6) 조선시대에 기생은 신분이 일패(一牌), 이패(二牌), 삼패(三牌)로 분류되었다. 일본의 문예평론가인 가야무라 미나토는 한국의 기생문화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기생(妓生)은 “일패(一牌) 관기라고 하여 지위가 매우 높았으며, 나중에는 ‘정삼품’(正三品), ‘종4품’(從四品) 등과 같은 관직명이 붙는 기생도 출연했다”고 주장한다. (가야무라 미나토, 유재순 옮김, 『기생(妓生)』, 소담출판사, 2002, 51쪽.) 가야무라가 말한 일패(一牌) 기생은 시와 예술 분야에서 상당한 예술적 경지에 도달한 여성을 일컫는다.

관에 2권, 하버드 대학도서관에 1권이 보전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매창의 기생으로서 삶과 교유들과의 사랑을 조망해보자. 이능화(李能和)는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에서 이매창의 기생 생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扶安妓桂生이 工詩善謳彈瑟니 號梅窓이라 以選上京瑟니 貴遊子弟. 暮不邀致瑟야 爭先興酬唱이러라. 一日에 柳斯文塗 往訪之瑟니 金崔兩姓. 以狂俠自負者 已先在座러라. 桂生이 設酌以待홀시 酒半釀에 三人이 皆注目하야 欲桃之하니 桂生이 笑而舉令曰. 諸君은 各誦風流場詩瑟야 以助一歡瑟되 至如.7)

부안기(扶安妓) 계생(桂生)은 시에 뛰어났으며 노래를 잘하고, 거문고도 잘 탔으며, 호를 매창(梅窓)이라고 하였다. 뽕혀서 도성으로 올라오니 귀한 집 자제들이 다투어 초청하여 함께 노닐었다. 하루는 유사문(柳斯文)도 찾아갔는데, 한량(閑良)으로 자부하는 김(金)가와 최(崔)가라는 두 사람이 자리에 먼저 와 있었다. 계생이 나와서 술을 대접하였다. 술이 거나해지자 세 사람이 일제히 시전을 계생(桂生)에게로 보내며 옥망의 꽃을 보냈다. 계생이 웃으면서 조건을 내세웠다. 여러분들께서 각각 풍류장시(風流場詩)를 읊어 흥을 돕도록 하시오.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뛰어난 시적 재능을 타고난 기생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가무에도 능하고 특히 거문고 연주는 일품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한양에 갔을 때에, 한양에 살던 양반 자제들은 그녀의 육체적 아름다움, 해박한 지식, 그리고 능숙한 가무에 매혹되어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욕정에 사로잡혀 “옥망의 꽃”을 피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욕정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풍류장시를 읊어” 풍류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양반 자제들의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기지를 발휘한다. 이렇듯 이매창의 시 수준은 당시의 사대부들과 교류하고 즐길 만큼 손색이 없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7) 李能和, 『朝鮮解語花史』, 學文閣, 1968, 213쪽.

알 수 있다.

그리고 허균은 『성소부부고(惺所復部藁)』에서 다음과 같이 이매창을 설명한다.

七月初八日丁酉，辭朝，渡銅崔浦，療方漲，拏舟緋波緋洲，僅抵南岸，午抵果川，主倅初不在，妾雪兒邀酌于小軒，以陽曝乞其青傘而行，夕抵水原，則府使朴叔彬公以女痘不出，邊兄敬之氏采語同宿。⁸⁾

신축년(1601) 7월에 임자일 부안에 이르렀다. 허균은 계생(매창)을 처음 만나 그녀의 시를 들은 날부터 그녀를 좋아하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를 육체적으로까지 사랑하지는 않았다. 그는 19년 뒤에도 이날의 첫 만남을 기억하면서, 만일 그 때에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이 들었더라면 우리가 이처럼 10년씩이나 가깝게 지낼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다. 그토록 여자를 좋아했던 허균이었지만, 자기의 고백 그대로 계생과는 끝내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니, 계생의 절조 높은 뜻을 허균이 알고서, 정신적 여인으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또한 계생도 허균이 자길 좋아 하는 줄 알면서도 그의 몸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자기 대신 조카딸을 허균의 방으로 들여보내준 계생의 마음씨 또한 놀랍다. 그토록 지혜로운 여인이었기에 처음 만나자마자 허균과 하루 종일 시를 주고받으며 즐겁게 노닐 수 있었을 것이다.

허균이 이매창을 처음 만난 것은 1601년이다. 그는 32세이었고, 그녀는 28세이었다. 그와 그녀는 둘 다 첫 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그는 그녀와 남다른 교분을 나누면서, 그가 항상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생각했던 누이 허난설헌과 그녀와의 유사점을 많이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 사랑보다는 정신적 사랑을 나누는 연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다. 그는 이러한 그들의 사랑이야기를 「애계랑」(哀桂娘)⁹⁾에 묘사해서 그녀를 칭송하고 선녀(仙女)로 상징화 하였다. 그는 그녀를 이옥여(李玉汝)의 정인으로 묘사한다. 이렇듯 당대 최고의 문

8) 許筠, 『惺所復部藁』, 「漕官紀行」, 283쪽.

9) 許筠, 위의 책, 「詩部 二」, 147쪽.

장가인 그가 기생 신분인 그녀를 이토록 연인으로 사랑하면서 10년 동안 정신적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뛰어난 시적 재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한다.

허균은 「애계랑」(哀桂娘)에서 이매창을 설도에 비유하면서 그녀의 죽음을 애도한다. 아래의 시를 보도록 한다.

妙句堪橋錦	아름다운 글귀는 비단을 펴는 듯하고
淸歌鮮駐雲	맑은 노래는 구름도 멈추게 하네
偷桃來下界	복숭아를 훔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더니
竊藥去人裙	불사약을 훔쳐서 인간 무리를 두고 떠났네
燈暗芙蓉帳	부용꽃 수놓은 휘장엔 등불이 어둡기만 하고
香殘翡翠裙	비취색 취마엔 향내가 아직 남아 있는데
明年小桃發	이듬에 작은 복숭아가 열릴 때쯤이면
誰過薛濤墳	그 누가 설도의 무덤 곁을 찾아오려나

「哀桂娘」

허균은 이매창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애계랑」(哀桂娘)을 지어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다. 당시 사대부 중에서 기생의 죽음을 이토록 가슴 아프게 그리워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시를 “아름다운 글귀는 비단을 펴는” 고운 맛이 나서 그녀를 마음의 연인으로 사랑했으며, 그녀의 가무를 “구름도 멈추게” 할 만큼 뛰어났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복숭아를 훔쳐서” 인간세계로 내려온 선녀에 비유되고 있다. 그런데 그는 그녀의 죽음을 “불사약을 훔친” 것으로 묘사하여 그녀가 너무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을 애절해 하면서, “취마엔 향내”가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아서 그의 슬픔과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가족과 지인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이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부용꽃 수놓은 휘장엔 등불이 어둡기”만 하여 이듬에 누가 그녀의 무덤에 찾아 올 것인가라고 자문하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그는 이 시에서 그녀가 당나라 기생

인 설도와 같은 삶을 살아서, 그들의 정신적 연인관계는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녀의 일생동안의 연인인 유희경과의 인연을 통해 그녀의 시적 재능이 점차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유희경은 이매창이 본격적으로 시 창작을 배워서 자신의 마음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이매창은 유희경에게서 시 창작의 기법을 전수받고 그의 표현방법을 답습하는 시를 창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시가 유희경의 시와 표현법과 시어 뿐만 아니라 시의 구성방식이 유사하다는 것을 쉽게 읽어낼 수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런 점 때문에 그녀의 시가 바로 유희경 시의 그림자라고 말한다.¹⁰⁾ 그러면 그녀의 시에 제시된 시풍과 유희경의 시풍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이매창의 시는 유희경의 시와 관련성이 짙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다. 두 사람의 시는 시상의 전개에 있어서나 시어 구사에 있어서 아주 비슷하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 시로 창화를 하며 사랑을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 교감이 이뤄졌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¹¹⁾ 그의 시와 그녀의 시에서 가장 유사점은 두 사람이 모두 당시풍으로 시를 창작했다는 점이다. 그녀는 그에게서 문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작품세계가 성숙하도록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녀의 문학세계는 그를 만남으로써 더욱 확장되고 깊이 있는 이미지와 상징으로 더욱 무르익어 갔다.

그 당시에 사대부들은 송시풍을 버리고 당시풍으로 시를 창작했다. 이매창도 이들의 시풍에 따라 당시풍으로 창작활동을 했다. 그녀의 작품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유희경과 허균이다. 한사람은 정인으로, 또 다른 사람은 마음의 연인과 교류로서 돈독한 우정을 쌓았던 사람들이다. 유희경과 허균은 삼당파 시인이었다. 삼당파 시인들은 자연이

10) 金智勇, 「매창 문학 연구」, 『梅窓全集』(3), 고글, 2000, 81쪽.

11) 김미란, 「梅窓研究」, 『梅窓全集』(4), 고글, 2000, 33쪽.

도학(道學)과는 거리가 멀고, 심미적 인식과도 구별된다고 보았다. 특히 삼당파 시인들 중에서 이달은 자연을 자신의 삶의 공간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당시풍의 경향은 유희경, 허균, 이매창에게 일생동안 영향을 미쳤다. 유희경은 박순으로부터 당시풍을 배웠고, 허균은 이달로부터 당시풍의 시를 배웠다. 이매창은 이 두 문인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당시풍의 시를 창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의 시는 주관적 감성뿐만 아니라 서정적 형상화가 짙게 배어있다.

다음으로 「증계랑(贈癸娘)」¹²⁾에 유희경과 이매창의 연인관계에 대한 감수성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 살펴보자.

曾聞南國癸娘名	일찍이 남국의 계랑 이름 소문나
詩韻歌詞動洛城	글숨씨 재주 서울까지 울리더니
今日相看眞面目	오늘에야 그 모습 대하고 보니
去疑神女下三清	선녀가 떨쳐입고 내려온 듯 하구나

「贈癸娘」

이 시는 유희경이 처음 이매창을 만나서 지었던 시이다. 이매창은 한양까지 소문이 자자했고, 유희경은 소문을 통해서 그녀가 시를 잘 짓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녀를 처음 본 순간 하늘에서 “선녀가 떨쳐입고 내려온” 듯한 그녀의 모습에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자연스럽게 시로 노래를 불렀다. 이 시 외에도 그와 그녀가 주고받은 많은 시들이 있다. 나중에 그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에, 그는 한양에 있으면서 부안에 있는 그녀를 그리워하면서 시를 쓰고, 또한 부안에 있는 그녀도 한양에 있는 임을 그리워하면서 시를 창작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시에 투영시킨다.

娘家在浪州 그대 집은 낭주에 있고

12) 유희경은 「懷癸娘」 외에도 「寄癸娘」, 「懷癸娘」, 「戲贈癸娘」, 「途中憶癸娘」, 「重峯癸娘」, 「贈癸花」, 「贈琴娥」 등이 있다.

我家住京口 나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
 相思不相見 그리움 사무쳐도 서로 못 보고
 腸斷梧桐雨 오동나무 비 뿌릴 제 창자 끊기네
 「懷癸娘」

위의 시에서 그는 자신의 연인 이매창을 미치도록 보고 싶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가 그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가는 “오동나무 비 뿌릴 제 창자 끊기네”라고 슬픔에 잠겨 탄식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오동나무”는 실제로 자연에 있는 오동나무를 의미한 것이 아니고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거문고의 이미지라고 봐야한다. 이는 그가 한양에 거주하면서 길을 걸어가거나 집에 있을 때 거문고 소리만 들어도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창자”가 끊어져 죽을 정도로 그리움이 사무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동나무는 이매창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이 시에서 우리는 유희경이 이매창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매창의 「증별(贈別)」이라는 시를 통해서 그녀의 유희경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절절하게 시에 녹아있는지 알아보자.

我有古秦菜 간직한 옛 비파 홀로 뜯으니
 一彈百感生 생각은 흘러 흘러 끝이 없어라
 世無知此曲 이 곡조 누가 알리 그 누가 알으리
 遙和緱山笙 임의 먼 첫대에 맞춰 보노니
 「贈別」

위의 시는 이매창이 유희경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녀는 그녀의 연인인 유희경을 그리워하면서 비파를 꺼내서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가락을 연주하며, 그녀의 애인을 한양으로 보내기 이전의 아름다운 시간을 회상하고 있다. 임에 대한 그리움은 “생각은 흘러 흘러 끝이 없어라”처럼 끝없이 한양과 부안사이를 수천 번씩 왕래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녀의 이런 가슴 메이는 그리움을 알지

못하고 단지 그녀가 비파를 연주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혼자 부안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한양에 있는 사랑하는 임 옆에 있는 것을 “임의 먼 젖대에 맞춰 보노니”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녀는 마음으로 유희경이 가지고 있는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다. 또한 이는 두 사람이 시공을 초월하여 서로 성관계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이미지로도 볼 수 있다.

위의 두 시는 운율도 닮았고, 그 내용도 비슷하다. 유희경은 적극적으로 그리움을 표현하고, 이에 비해 이매창은 그리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어나 감정의 흐름은 비슷하다. 이매창의 시는 유희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 제시된 감정이나 마음의 표현은 비슷하다. 하지만 유희경의 시는 사무칠 정도로 그리움이 묻어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낭주는 부안을 말하며, 한양과 부안의 거리는 너무 멀어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리움을 시로 드러내고 있다. 이매창이 38세의 젊은 나이로 죽을 때까지 가슴속 깊이 사랑하는 남자는 오직 한 사람 유희경이었다. 물론 유희경도 고희(古稀)가 넘도록 이매창만을 사랑하였다. 그 두 사람은 신분적인 차이점이 뚜렷하여 사회제도적인 유사점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시라는 문학세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서로의 나이와 신분을 초월하도록 만들어 일생동안 연인으로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는 이매창의 기생으로써 삶과 교유들이 그들의 시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의 시 세계가 얼마만큼 성숙하도록 만들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연인과 교유들이 그녀의 작품세계에서 어떤 이미지로 노래되어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되는지를 알아보자.

3. 이매창의 시에 나타난 사랑의 노래

문학은 언어의 예술이다. 시인은 작품에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상

이나 감정을 전달한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이미지와 상징으로 표현하여 작품에 자신의 삶을 투영시킨다. 이매창의 시에도 자신의 순수함과 사랑하는 마음, 고독과 그리움이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기교로 시에 형상화되어 있다. 이제는 그녀의 시에 제시된 그녀의 솔직하고 담백한 입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봄 이미지, 가을 이미지, 그리고 내세 이미지를 통해 어떻게 발전되어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되는가를 검토해보자.

3.1 봄(春) 이미지

인간은 계절에 따라 감정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며, 계절은 시인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매창의 시에서는 4계절 중 봄과 가을이 이미지로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을 이미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그다음이 봄 이미지이다. 먼저 이매창이 시에 사용한 봄 이미지를 통해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사랑의 이미지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자.

東風三月時	春三月 바람이 불어오고
處處落花飛	곳곳마다 꽃잎은 흩날리는지
綠綺相思曲	내홀로 「相思曲」 뜯어보아도
江南人未歸	江南 간 그대의 소식은 없고

「春思」

엄동설한의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에 꽃이 피는 봄이 다가오는데도 한양으로 떠난 입은 돌아온다는 소식이 없다. 시인은 입이 떠날 때에는 분명히 꽃이 피는 “춘삼월”이 되면 돌아온다고 하였건만, 동산에 꽃이 만개하여 꽃잎이 흩날릴지라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꽃잎에 마음을 띄워 입에게로 보내고 있다. 이 시에서 이매창은 입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홀로 가야금으로 「상사곡」을 연주하면서 가슴속의 애절한 그리움을 달래

고 있다. 「상사곡」은 시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별한 여인이나 잠시 헤어져 있는 연인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며 부르는 노래이다. 이처럼 이매창이 살았던 시기에 기방의 기생들은 자신들의 입에 대한 사랑과 이별의 슬픔, 사랑하던 연인의 죽음에 대한 고통을 시의 소재로 많이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매창은 이 시에서처럼 사랑하는 입에 대한 원망보다는 입에 대한 소식이 없음을 애절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매창의 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는 연정시(戀情詩)이다. 사랑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매창도 역시 여성이었기에 사랑에 대한 낭만적 환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당시 여류시인들이 시에 그렸던 것과는 다른 자신만의 표현법으로 사랑을 시에 노래했다. 그러하기에 그녀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돌아왔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아니라 그리움만 커져가는 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그녀가 평생 동안 한 남자만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봄 이미지로 제시한 것이다. 그녀는 다른 시인들과 달리 입과의 완전한 사랑을 꿈꿨다.

雪積蓬山北	蓬萊山 깊은 봉우리에 흰 눈이 쌓여
運梅未放花	梅花꽃 피는 것은 이리도 더딘가
明年應早發	오는 봄엔 일찍 피어서
春色屬誰家	입의 뜰에도 찾아가오리

「呈 李使君」

아직도 늦겨울이어서 “봉래산 깊은 봉우리에 흰 눈이 쌓여” 있어 매화꽃이 필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매창의 마음에는 이미 매화꽃이 만발한데, 봉래산의 봉우리를 보니 눈만 쌓여 있고 “매화꽃” 피는 것이 왜 이리 더디냐고 봄이 다가오기를 재촉하고 있다. 봄이 빨리 와야 입의 뜰에도 매화꽃이 필 것이라는 시인의 바람을 노래하고 있다. 계절은 1년 단위로 순환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그녀는 입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봄이 와서 뜰에 꽃이 피면, 입이 입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시꺼멓

게 타고 있는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에게로 되돌아와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매창의 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어는 ‘임’이다. ‘임’은 임금, 애인, 존경하는 대상 등으로 풀이되는 다층적 의미를 가져서 왕권 중심 사회의 수직적 사고의 관습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존재가 상실된 고통스런 삶에서 통합을 추구하는 초월적 이미지이다. 이는 현재의 정황을 시에 이미지로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會年此夕瑤池會	지난해 이 밤을
我是樽前歌舞人	내 노래하였지만
宜城舊主今安在	옛 임은 없고
一砌殘花昔日春	꽃들만 핀 그 봄이여

「春秋 二」

이제 봄이 찾아와 뜰에 매화꽃이 만개하였지만, 임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시인은 임이 떠날 때에 봄이 되어 매화꽃이 피면 꼭 돌아오겠다고 약조를 하여 봄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시인은 막상 봄이 되었는데도 임은 없고 “꽃들만 핀 그 봄”이 또 다가왔다고 한탄하고 있다. 그래서 시인은 사랑하는 임과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고 싶지만 옛 임은 지금 없고 꽃만 피어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다. 조선 중기에는 당시(唐詩)가 유행하면서 명나라 의고파의 복고적 성향을 수용하고 의고악부를 통하여 사랑을 노래한 시가 아주 많이 창작되었다. 이 작품도 그 당시의 시대적 변화를 알리는 주제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이매창은 봄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랑하는 임인 유희경이 없는 슬픔의 봄을 시에 그려내고 있다. 그녀는 기생이 된 자신의 앞곳은 운명과 사랑하는 임은 없고 꽃들만 핀 봄을 임에 대한 그리움에 비유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봄 이미지는 임을 만나고자 하는 바람과 기생의 신분을 버리고 다음 생에 사대부의 규수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소망을 피력한 것이다.

이매창과 유희경의 사랑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다. 그녀는 그를 임진왜란으로 10년 이상이나 만나지 못하지만, 그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지속시켰다. 그녀는 이러한 과정을 시에 “봄날에 강남에 간 임”, “오는 봄엔 일찍 피어서 임의 뜰”, “임은 없는데 꽃만 피는 봄”이라는 봄 이미지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다. 봄에 꽃이 피어 있다는 것은 임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의 토로이다. 다음으로 가을 이미지를 검토해 봄으로써 봄 이미지와 어떤 차이점과 유사성이 있는지 알아보자.

3.2 가을(秋) 이미지

조선 시대 기류문학은 사랑과 이별, 그리고 임의 부재에서 오는 고독을 노래했다. 그리고 기생들은 자신들의 괴로움과 그리움을 가야금 연주와 바느질로 달랬다.¹³⁾ 허난설헌은 작품에 원망과 비탄의 운명적 여심을 짙게 드러냈지만, 반면에 이매창은 작품에 자신의 신분에 대한 반항과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았다. 이매창의 작품과 다른 기생들의 작품과의 차이점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원망이나 경물의 형상화보다는 경물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작품에 직접 묻어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매창은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자연의 이미지에 비유하여 승화시키고 있다.

가을은 충만의 계절이고 수확의 기쁨을 얻는 계절이다. 하지만 이매창의 시에는 가을을 풍성한 수확의 계절과 반대로 이별과 그리움으로 그려내고 있다. 시인은 가을만 되면 왠지 외롭고 떠나간 임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 계절이다. 이런 계절이 다가오면 시인은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며칠 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한다. 가을 이미지가 그녀의 시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드러다 보자.

13) 崔榮伊, 「梅窓 文學 研究」, 『梅窓全集』(3), 고글, 2000, 60쪽.

雨後涼風玉筆秋	가을 비 선뜻 개이자 바람이 일고
一輪明月掛樓頭	휘영청 밝은 달이 다락에 걸려
洞房終夜寒蛩響	밤새 울어예는 벌레소리에
搗盡中腸萬斛愁	내 간장 그대로 다 끊어지네

「秋思(一)」

가을비가 개이고 밝은 달이 떠오르자, 시인은 다락에 걸린 달을 바라보면서 한양에 계신 임 생각에 빠져있다. “가을비”와 “바람”은 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드러내지만 “밝은 달”은 임과의 행복했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암시한다. 이 달은 부안의 하늘뿐만 아니라 임이 계시는 한양의 하늘에도 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는 매개물을 서로 헤어져 있는 연인들이 통합을 이루거나 만남이 성취되는 이미지로 사용한다. 서로 그리움에 젖어 있는 두 남녀는 달 이미지를 통해서 매일 만나지만, 이러한 것이 그들의 이별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밤새 울어예는 벌레소리”로 묘사된다. 시인은 사랑하는 유희경이 없이 가을을 보내는 마음을 밤새 울어대는 벌레에 빗대어 읊고 있다. 이제 시인은 환상세계에서 벌레가 우는 현실세계로 되돌아와서 “내 간장 그대로 다 끊어”지는 고통을 맞보고 있다. 이는 시인이 자신의 연인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가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시인의 독특한 창작기법중의 하나이다. 시인은 “가을 비”, “다락”, “벌레”, 그리고 “간장의 끊어짐”과 같은 시어를 사용하여 올해도 임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다음 시에서도 이매창이 유희경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유희경은 젊었을 때 부안에서 노닐면서 부안 기생 계생과 사귄 이후에 그녀를 그리워하면서 많은 시¹⁴⁾을 창작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황에 이매창과 유희경 사이의 연인관계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그들이 헤어진 이후에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

14) 「계량을 생각하면서」, 「식영정을 노닐면서」, 「산중의 가을밤」, 「계량에게 주노라」, 「길가면서 계량을 생각노라」, 「계량에게 보내노라」 등의 시들이 있다.

일한다.

昨夜清霜雁叫秋	찬 서리에 기러기 울어 대는 가을 밤
擣衣征婦急登樓	설레는 마음에 다락에 올라
天涯尺素無緣見	天涯에 계신 임 소식은 조차 없으니
獨倚危欄暗結秋	난간에 기대어 마음 더욱 아파라

「秋思」

가을밤은 서리가 내려 차가운데 어디선가 기러기까지 울고 있다. 시인은 이 기러기 소리가 임이 자신을 만나러 오는 소리인줄 알고 버선발로 다락으로 뛰어 올라 갔지만 임은 없고 기러기만 소리 내어 울고 있다. 여기에서 “기러기”는 가을에 와서 봄에 북쪽으로 날아가는 철새로 임을 상징하는 이미지이다. 그녀는 가을이 되니 한양에 있던 기러기가 부안으로 왔지만 임은 기러기와 함께 오지 않고 소식도 없어 난간에 기대어 마음만 아파한다. 그녀는 가을을 풍요의 계절이 아닌 정한의 계절로 인식한다. “기러기”, “서리”, “다락”, “난간”의 이미지는 외로움과 고독, 단절과 고립을 의미하는 상징이다. 허미자는 매창의 시에서 소생하는 계절인 봄에 꽃이 피는 것과 소멸하는 계절인 가을에 나뭇잎이 질 때 가장 환상적 창작의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한다.¹⁵⁾ 그래서 「춘사(春思)」와 「추사(秋思)」에는 임의 부재현상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 있다. 이때창은 봄이 오고 가을이 와도 임이 돌아오지 않아서, 가을이 오면 더욱 쓸쓸해져 임에 대한 그리움과 고독이 저절로 확장된다. 다음으로는 이때창의 시가 봄과 가을 이미지를 넘어서서 내세의 이미지로 발전되어 연인에 대한 영원한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을 알아보자.

3.3 내세(來世) 이미지

15) 許米子, 「漢詩를 통해 본 梅窓의 意識世界」, 『梅窓全集』(3), 고글, 2000, 169쪽.

이매창은 후기에 접어들어 종교와 관련된 시를 많이 창작했다. 그녀는 도교와 불교에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도교의 신선세계를 시에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신의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현실세계에서 이상세계까지 확장시켜 사랑의 완성을 추구한 것이다. 그녀의 시에서 도교의 신선사상이 가장 잘 투영된 시는 「선유 일(仙遊 一)」, 「선유 이(仙遊 二)」, 「억석(憶昔)」이다. 그녀는 말년에 자연을 관조하며 도교의 신선들이 사는 세계를 염원하기 시작했다. 조선중기 사회는 종교가 다원화되어 유교와 불교에 심취하여 살았던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허난설헌같이 도교에 몰입하여 산 여성들도 다수 있었다.¹⁶⁾ 이매창도 이러한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듯이 작품에 도교와 불교에 관한 시를 창작했다. 여기서는 그녀의 도교에 관련된 작품만을 논의할 것이다.

이매창은 현실의 고통스런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신선세계로 초월시키는 시 세계로 전환시킨다. 이는 그녀가 살고 있는 사회적 정황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그녀가 도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허균과의 만남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한다. 허균은 문장을 유성룡에게서 배웠고, 시는 손곡이달에게 배웠다. 허균의 학문은 제자백가와 불교, 도교와 서학에 이르기까지 박학다식했다.¹⁷⁾ 허균이 배운 도교의 신선사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고대의 민간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신선설을 그 중심에 두고 거기다가 도가역리·음양·오행·점성 등의 논법내지 이상과 무술적인 신앙을 보태고 그것을 불교의 체제와 조직을 흉내 내서 뭉뚱그려진, 불노장생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현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 종교이다.¹⁸⁾

그녀는 일생동안 허균과 정신적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후기에 도교의 신선들의 삶을 동경했으며, 특히 삼청세계를 시의 모티브로 사용하기 시

16) 김명희, 『許蘭雪軒의 文學』, 集文堂, 1987, 30쪽.

17) 김명희, 위의 책, 10쪽.

18) 車柱環, 『韓國道敎思想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22쪽.

작했다. 그래서 그녀의 시에 비로소 도교의 내세관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때창은 멀리 한양으로 떠나간 유희경을 그리워하며 고독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많은 날을 보내며, 현실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만남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만남을 신선세계에서 만나는 것으로 초월시킨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상상력을 사용해 신선세계에서 두 연인이 만나는 초월적 이미지를 시에 등장시킨다.

謫下當時壬癸辰
此生愁恨與誰伸
瑤琴獨彈孤鶯曲
悵望三清憶玉人

임 귀양살이 간 것은 임진, 계사였어라
이 몸의 시름과 한을 더불어 풀었으리
홀로 거문고 끼고 고앵곡을 뜯으면서
구슬픈 마음으로 삼청 세계 계실 그대를 그려보네

「憶昔」

위의 시는 유희경이 귀양살이를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임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고앵곡(외로운 피꼬리의 노래)으로 노래하고 있다. 삼청세계는 불교의 극락세계처럼 도교의 이상세계이다. 삼청세계는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이상향의 세계이다. 도교에서 삼청세계는 36천중에 하나이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경지의 천상세계이다. 도교의 36천은 최상천인 대라천(大羅天), 삼청경(三清境)인 옥청, 상청, 태청, 종민천(種民天)인 성제자천(聖弟子天) 또는 사범천(四梵天), 무색계(無色界) 4천, 색계(色界) 18천, 욕계(欲界) 6천으로 구성된 천상세계이다. 삼청세계는 옥청, 상청, 태청으로 구성된 하늘 위에 있는 별들의 세계이다. 그녀는 시에 “구슬픈 마음으로 삼청 세계 계실 그대를 그려보네”라고 노래하면서 이제는 두 사람이 현실세계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열정적인 사랑은 현실세계뿐만 아니라 내세에까지 지속될 것이란 것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그녀가 이러한 도교의 이상세계를 시어로 사용하여 그들의 완전한 사랑을 노래함으로써 이제 그녀가 시인으로써 자연계를 벗어나 우주와 연결되는 성숙한 시인이 되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매창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고통을 모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한 발 더 성숙한 시인으로 자신의 시상을 갖춰나가기 시작한다. 이는 그녀의 삶에 대한 관점이 성숙되어 현실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해탈의 경지에 도달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시인이 현실을 도피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봐야한다. 그래서 시인은 현실세계를 모두 수용하고 해탈하여 삼청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三山仙鏡裡	삼신산 신선들이 있는 곳엔
蘭苦翠微中	푸른 숲 속엔 절간이 있어라
鶴淚雲深樹	구름에 잠긴 나무엔 학이 울고
猿啼雪壓峰	눈 덮인 봉우리에선 잔나비도 울어라
霧光迷曉月	자욱한 안개 속에 새벽달이 희미하고
端氣映盤空	상서로운 기운은 하늘 가득 어리었네
世外靑年客	세상등진 젊은이가
何妨禮赤松	적송자를 찾아 禮한들 어떠랴

「仙遊 二」

위의 시에서 시인은 삼청세계에서 현실세계로 내려와 “세상등진 젊은이”로 등장한다. 이 젊은이는 “삼신산 신선들이 있는” 절간에 머물면서 현실세계를 내려다보고 있다. 세상은 온갖 권모술수와 정쟁으로 가득하여 “구름”에 잠겨있거나 “자욱한 안개”로 덮여 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학”은 자신의 고고한 자태를 잊어버리고 통곡을 하고 있고, “새벽달”은 안개에 가려 은빛 아름다움을 상실했다. 그래서 하늘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알고 있는 듯 “상서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시인은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적송자”인 소나무를 찾아가 예를 갖추려고 한다. 여기에서 소나무는 1년 내내 변함없이 푸르른 솔잎을 간직하면서 사시사철 어떤 풍파가 와도 꺾이지 않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바로 유희경과 이매창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 시에서는 “삼신산”, “신선”, “푸르른”, “절간”, “구름”, “학”, “봉우리”, “원숭이” 등의 시의 소재가 등장한다. 이러한 시의 제재들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사랑을 영원한 피안처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하는 매개물이다. 그리고 특히 “학”은 상서로운 동물로서 이매창의 입을 상징하기도 하고, 현실세계와 삼청세계를 왕래하는 매신저로써 현실세계와 이상세계를 연결하는 이미지이다. 이매창은 이 시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감정을 드러내어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한 입을 그리워하는 고통을 이제 현실에서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삼청세계에서 완성해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작품에서 우리는 그녀의 작품세계가 최고의 완성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4. 맺음말

이매창은 조선시대에 황진이에 비견되는 천재 여류시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부안의 명기로 알지만, 실제로 그녀는 한시, 시조, 가무, 현금에 이르기까지 다재다능한 재능을 고루 갖춘 종합 예술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섬세하고 예민한 감정을 즉흥적으로 시와 시조로 읊어 그 당시에 유명한 문사(文士)들의 감탄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이에 필자는 그녀를 명기로 인식하기보다는 여성의 우아하고 섬세한 감정을 작품에 노래한 위대한 여류시인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매창은 시를 쓰는 문장력과 거문고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대부 집안의 남자들은 그녀에게 많은 연정을 품었다. 이들 중에는 『홍길동전』을 창작한 허균과 상례(喪禮)에 능숙한 유희경이 있었다. 그녀는 허균과 일생동안 친구로 지냈지만, 유희경과는 첫눈에 반해 금방 사랑에 빠져 평생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했다. 그녀가 유희경과 사랑에 빠진 것은 그의 폭넓은 학식이 그녀의 마음을 매료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일생동안 지속되었다. 이런 점에서 그녀의 고결한 인품과 지조를 드러다 볼 수 있었다.

이매창이 살았던 시대는 ‘송시풍’이 ‘당시풍’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었다. 조선의 시인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당시풍을 답습하여 시를 창작하였다. 그 중에 유명한 시인들은 삼당파 시인이었다. 삼당파 시인 중에서 특히 이달의 시가 그 당시에 유명하였으며, 이달은 허균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매창은 직접 이달에게서 사사(師事)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허균을 통해서 이달의 시풍을 배웠다. 그리고 그녀는 유희경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로소 자신만의 독특한 아름다운 시의 형식과 내용을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시풍의 경향을 띄는 아주 세련되고 독창적인 시를 창작하였고, 시에 자신의 자아정체성과 사랑을 노래했다.

이매창은 섬세하고 날카로운 여성의 감수성으로 아름답고 격조 있는 시어를 사용해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사랑을 시에 노래하는 연정시를 창작했다. 이러한 애절하고 애뜻한 연인의 사랑 이야기는 현대의 독자들에게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과 기품 있는 연애가 무엇인가를 시를 통해 보여주는 전형으로 남아있다. 그녀는 비록 신분은 기생이지만 우아하고 섬세한 시를 노래해 조선 중기의 여류 문학 작품의 질이 얼마나 뛰어나고 우수했는가를 보여주었다. 이에 필자는 시인 이매창이 조선시대의 여성문학사에 커다란 한 획을 그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자료>

『梅窓集』

『扶安郡誌』

許筠, 「詩部 二」, 『惺所復部藁』, 147쪽.

——, 「漕官」紀行」, 『惺所復部藁』, 283쪽.

<논저>

가아무라 미나토 저, 유재순 옮김, 『기생(妓生)』, 소담출판사, 2002, 51쪽.

김명희, 『許蘭雪軒의 文學』, 集文堂, 1987, 30쪽.

김미란, 「梅窓研究」, 『梅窓全集』(4), 고글, 2000, 18쪽.

김보근, 「매창의 한시 일고」, 『조선시대 여성문학과 사상』, 이회, 2003, 120쪽.

金智勇, 「매창(梅窓) 문학연구」, 『梅窓全集』(3), 고글, 2000, 81쪽.

李能和, 『朝鮮解語花史』, 學文閣, 1968, 213쪽.

鄭飛石, 「妓生の 역사」, 『梅窓全集』(1), 고글, 2000, 39쪽.

車柱環, 『韓國道敎思想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22쪽.

崔榮伊, 「梅窓 文學 研究」, 『梅窓全集』(3), 고글, 2000, 60쪽.

許米子, 「漢詩를 통해 본 梅窓의 意識世界」, 『梅窓全集』(3), 고글, 2000, 169쪽.

투고일 : 2013년 7월 15일, 심사 : 2013년 7월 24일~8월 9일, 게재확정 : 8월 9일

<Abstract>

A Study on Maechang's Romantic Love Poems

Yu, Yuk-rye

Maechang was born in the middle of the Chosŏn dynasty. Most of other scholars studied Maechang's poem about love, tragic love, the yearning for the beloved. However, this paper focused on studying Maechang's romantic love poems.

Maechang wrote a poem so skillfully and played a kŏmungo, a Korean harp with six strings, very well. In that regard, she was a kisaeng that well-educated classes of the gentry became acquainted with. It was her fascination. She had a good friendship with Heo kyun for a long time. But she only loved Ryu Hee Kyung. So she was interested in Tong poetry and wanted to write that style of poetry. At that time, Lee Dal, one of the Samdangpa poet, influenced Heo Kyun and Heo Nan Seol Heon for the Tong style of poetry. So Ryu Hee Kyung wrote a Tong poem. And it is certainly confirmed that he sent many poems to Maechang. Most of kisaeng wrote poems in the Tong style of poetry. And Maechang wrote them to correspond with Heo Kyun and Ryu Hee Kyung.

In the end, Maechang's creative method of poem was very specific. Because her poem represented effectively the yearning of her lover in it and she tried to expand her deep emotion in her poem as well as subject matter to her reader. It seemed that her poems had a feminine delicacy and grace. It was because she was a high qualified character. Therefore she contribute a great deal to the history of feminine literature in the

middle of Chosun Dynasty.

Key words : Maechang, romantic love poems, love, yearning, image, kisaeng,
spring, autumn, afterlife